

목동 국제선센터, 간화선 집중 수행

11월 29일~12월 1일...선방과 동일 방식 진행



국제선센터 템플스테이는 스님들이 선방에서 생활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되는 것이 특징이다.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11월 29일~12월 1일 '간화선 집중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화두를 챙겨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겨나가는 지혜와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다. 템플스테이는 국제선센터 선감 탐종 스님과 국제차장 천초 스님의 지도로 진행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스님들이 선방에서 생활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되는 것

이 특징이다. 또한, 불교와사상의학연구회에서 템플스테이 전과 후의 참가자들의 심리 변화를 측정해 참가자 본인의 심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선센터는 "참선에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한 사람, 참선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 바른 지도가 필요한 사람 등 참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내·외국인 누구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02)2650-2242

이아은 기자

"절반의 책임, 아빠(엄마)는 어디있나요?"

한국두리모지원협의회, 미혼부모 양육책임강화 포럼

(사)지혜로운여성(이사장 경영연)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두리모지원협의회(회장 이영호)가 11월 4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비양육 미혼부(모) 양육책임강화를 위한 포럼 '절반의 책임, 아빠(엄마)는 어디있나요?'를 개최했다.



미혼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확보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종합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포럼을 주최한 한국두리모지원협의회는 2011년 4월 결성된 두리모지원 네트워크 조직으로 전국 22개 기관 및 개인 회원이 소속되어 두리모(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이슈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미혼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양육 두리모 당사자 두명이 사례를 발표하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장명선 박사의 '미혼 한부모 자녀양육비 실태 및 확보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및 착한벤티심리상담센터 권경희 대표의 '두리모 양육비 청구 관련 상담사례'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영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미혼 한부모가족의 지극한 어려움을 위한 활동이 관심있는 사람들과의 공론화 활동이 아닌,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들의 호응으로 함께 어우러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두리모들이 자녀양육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환경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양육 미혼부(모) 양육책임강화를 위한 법률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전담하는 전달식이 진행됐다. 2012년부터 한국두리모지원협의회가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한 비양육 미혼부(모) 양육책임강화를 위한 법률제정 촉구 서명운동은 현재까지 약 5천여명이 비양육 미혼부(모) 양육책임강화를 위한 법률제정 촉구를 공감하여 서명활동에 동참했다. 이아은 기자

공생과정 졸업생, 자발적 수행 개발 '눈길'

한마음과학원, 10월 20일 수행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

마음공부 프로그램인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각각의 사회적 역량을 발판삼아 자발적으로 수행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은 "대행 스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성교육과 사회교육 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기 시작한지 10여 년이 되어간다"며 "그 동안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각각의 사회적 역량을 발판으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운영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한마음과학원은 10월 20일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에서 '새로운 삶' 본 한마음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자발적으로 운영된 수행프로그램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한마음과학원은 10월 20일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에서 '새로운 삶' 본 한마음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자발적으로 운영된 수행프로그램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소개된 사례는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법행제회와 경남한마음인성교육연구회에서 진행한 프로그램들이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법행제회는 '보리문둥이들의 첫 발 내딛기'를 주제로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법행제회는 "대구지역은 개인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모임과 계를 갖고 있는 곳이며 타 지역 보다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곳이다. 이로 인해 가족과의 소통이 소홀해지고 사회적으로 황혼이혼과 청소년 인성문제, 자살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다"

며 "법행제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정의 역할 속에서 나를 찾고 나누는 마음도리를 실천해 소통과 화합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자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했다"고 말했다. 법행제회가 진행한 프로그램 '쉬어가는 길'은 입재부터 회향까지 5주에 걸쳐 진행됐다. 대구지원 법행제회 회원들과 자부회 회원들은 대행 스님이 가정의 역할에 대해 법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성찰 △가족과의 소통 △가족과 화합 △우리는 한마음 한 가족 등 4단계 과정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어진 실천과제를 수행했다. 법행제회는 "가부장적인 지역적 성향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강의식이 아닌 실천과제에 대해 마음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프로그램 후 참가자들은 서로의 유대감이 강화됨을 느끼고 가족 간 대화

와 소통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다. 11월에 참가자들과 함께 후속으로 심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한마음인성교육연구회(이하 연구회)의 발표가 이어졌다. 연구회는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에 교사분자 및 진주지원 교사들이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다. 이들은 한마음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한마음 인성교육'을 듣고 발심한 조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교사직무 연수과정'을 공식 승인받고 '인성교육을 위한 셀프리더십 과정' 연수를 8월 5~9일 창원 도계초등학교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수과정은 인성교육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 조화로운 학생지도 및 학급운영 방법에 관한 프로그램을 같이 탐구하고, 내면의 힘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데 귀중한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셀프 리더십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구회는 한마음과학원 김용환 기획조정실장, 이경옥 원광디지털대 교수 등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우수한 강사들을 초빙해 경남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연구회는 "현재 인성교육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표면에 나타난 행동만을 교육의 대상으로 한 결과, 학생들은 잠재능력이 무한한 지혜와 능력 발현을 위한 학습의 기회가 없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셀프리더십이 결여돼 있다"며 "한마음 인성교육은 교사라면 누구나 쉽게 지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 연구회를 조직해 경상남도 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회는 "23명의 연수 대상자 가운데 불자는 12명이었으며, 기독교, 천주교 신자를 비롯해 무교는 11명으로 다양할 정도로 셀프리더십에 관심을 보였다"며 "23명 가운데 19명이 교사 자신의 셀프리더십 향상에 도움이 됐으며, 대부분이 학생들을 이해하고 인성교육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한마음과학원은 "10년간 안양 본원에서 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여러 지역에서 자발적 모임이 탄생하는 고무적인 성과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공생실천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마음공부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아은 기자 oasis1963@hyunbul.com

미항사 '대입수험생을 위한 마음학교'

11월 30일~12월 28일 30명 모집

해남 미항사(주지 금강)는 대학입시로 지친 수험생들을 위해 '대입수험생을 위한 마음학교'를 연다. '대입수험생을 위한 마음학교'는 5주에 걸쳐 미항사와 국립중앙박물관, 템플스테이관에서 열리며, 명상과 은유치료, 불교인문학, 템플스테이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1차는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2차는 12월 1일~29일, 매주 일요일 오후 2~5시에 열린다. 명상은 나 자신과 가족 주변의 모든 것에 밝고 맑은 마음을 회복하는 계기를, 은유치료는 새롭고 긍정적인 자신의 이야기를 만드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 또 불교인문학

은 불교의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를 터득하는 기회를 준다. 템플스테이는 12월 6~8일 미항사에서 열린다. 참선, 108배, 다도, 팟갈 바닷가 걷기 등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지도법사는 참선집중수행 '참사람의 향기'를 80회 진행한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과 동국대 불교대학원 명상상담학과 교수인 명법 스님이 참가자들과 함께 일정을 진행한다. 미항사는 "10대의 아이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에 몰입한 적은 있어도 단 1시간만이라도 자신에 대해 집중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초중고 입학과 달리 어른



미항사는 11월 30일~12월 28일 수험생들을 위한 마음학교를 연다.

이 되는 문턱에 서있는 모든 것이 불안한 20살 즈음에 '마음학교'는 학교의 무게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는 자기성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201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

룬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차, 2차 각 15명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회비는 템플스테이 비용을 포함해 20만원이다. (061)533-3521 이아은 기자

공고 제2013-3호

10·27법난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등 신청공고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개정 등에 따라 동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신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1. 11.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회위원장

- 1. 신청기간**
2013.11.11. ~ 2014.12.31.(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2. 신청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
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1)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2)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피해종교단체)
3)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사람의 유족
4)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승려이거나 승려의 신분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장
나.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
1)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 3. 신청서 접수기간**
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회(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1) 직접(방문) 제출: 일과 시간 내(09:00~18:00)
2) 우편 제출: 신청기간 내 도달
나. 주소: ☎110-300 서울 중로구 우정국로 68 동덕빌딩 9층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회」
- 4. 신청서 제출서류**
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1)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 1부
2) 피해경위서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 서류에 아래 서류를 더함.
가)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 (유족) 피해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소속된 종교단체의 장) 피해자의 소속 종교단체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
1)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경위서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한 경우, 2의 서류 생략 가능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 서류에 아래 서류를 더함.
가)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 (가족) 피해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5. 의료지원금 산정기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료비, 간호비, 보조장구 구입비 등을 산정
- 6. 심의·결정절차**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여부심사사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27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회에서 결정
- 7. 기타**
신청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1027beopnan.go.kr) 내 「피해자 신고서식」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회(전화 (02)738-62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적성·상담 안내

C.A.C 분석서

-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 상 담 료 : 20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탐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견제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흥연 (010-7925-4749)

인재 양성

◆ 프로그램 :
 •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 미래예측학 박사
 • 미래전략교육학 교수

- ◆ 동방대문대학교 교육인 수업 [목] (오후 2시 ~ 5시)
- ◆ 국제문화대학교 대학원 수업 [토] (오전 10시 ~ 오후 2시)
- ◆ 저서 : 규명 (1, 2, 3권 : 한숨미디어) 실천성명학 - 상원문화사
-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 수업일 : 매주 화·금요일(오후 5시 ~ 7시)

오시는 길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탐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